

영암 구림한옥마을, K-문화 대표주자 '발돋움'

내일부터 사흘간 국내 첫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 한옥 문화예술 심포지엄·전시·국제 초청 세미나 등 풍성

건축에서 K-문화의 대표 주자로 한옥의 가치를 높이는 국내 첫 한옥문화비엔날레가 영암에서 열린다. 6일 영암군에 따르면 오는 8-10일 구림한옥마을과 영암목재문화체험장 일원에서 '2024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를 개최한다.

'건축에서 문화로(Build Up Culture)'를 주제로 전남도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 한옥문화 비엔날레로 전통 문화유산인 한옥의 국제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문화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발견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한옥의 건축 가치 조명, 과거 한옥문화 활동의 현대적 계승, 한옥의 새로운 문화·예술 가치 창조, 한옥문화 체험 기회 제공 등으로 꾸며진다. 행사는 3일 동안 전시, 공연, 심포지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영암목재문화체험장에서 열리는 전시는 건축에서 문화로 폭을 넓힌 한옥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자리다.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은 역사 속에서 한옥이 축적해 온 문화 가치를 살펴

보고, 이를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표현·재해석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월출관에서는 실물과 같은 치수로 한옥을 그린 도면 '현지도'와 전통기법으로 한옥을 건립·복원하는 장인 '도편수'의 영상을 상영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생활리빙 공예품도 전시된다. 영암도자기박물관에서는 '휴식과 쉼'을 주제로 20년 역사의 아시아 현대 도예전 협력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암목재문화체험장의 중심부인 마당에는 전통 정자를 재현한 한옥 파빌리온 '문화의 샘'이 설치된다. 문화의 샘은 한옥문화비엔날레가 영암의 문화와 물을 길어내는 시작점임을 알리는 랜드마크로, 구림마을 한옥이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유산임을 동시에 보여준다. 한옥문화비엔날레의 주요 행사인 개막식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탈출 공연 등도 열린다. 이 밖에도 마당 주변 회랑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옥의 짜맞춤 구조를 배워보는 구조체험, 물레와 단청 체험, 로컬 페스타 등으로 풍성하게 채워진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구림마을 한옥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이자, 영암의 선조들이 월출산 청정 자연과 어울리며 대대로 살아온 생태문화의 보고"라며 "한옥문화비엔날레에서 한옥-한옥문화-생태로 이어지는 K-문화의 정수를 밝히고, 한옥을 영암의 도시브랜드로 삼을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영암=나동호기자

강진 쌀귀리 '맛·건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변비·심혈관 질환·탈모 예방 효과...빵·영양찰밥·떡 등 출시 30억 국비사업 유치...쌀귀리 가공 유통센터 설립·개발 매진

강진군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최고의 품질을 갖춘 쌀귀리를 맛과 영양을 담은 식품으로 출시해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다. 6일 강진군·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쌀귀리는 단백질, 칼슘,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풍부하고,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아 2002 미국의 뉴욕타임지에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됐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하며 탈모 예방, 피부미용에도 효과적이다. 강진군은 지난 2022년부터 30억원의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 쌀귀리 종합가공 유통센터 설치와 쌀귀리를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특 특 씹히는 식감이 좋은 알곡밥과 빵, 영양찰밥, 두툼떡, 선식, 분말, 김부각, 쿠키, 고추장 등 다양한 건강식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종자 보급지역으로 선정돼 연간 18을 공급하고 있다. 강진군은 농업인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해 질소 비료를 적게 쓰고 칼슘이나 규산질을 함유한 도복예방비료를 182농가 616ha, 1억4천300만원 지원했고, 쌀귀리 전용 파종기 15대를 지원, 밀식을 방지해 품질 향상과 생산

량 증대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353농가, 1천48ha에 재배보급 가입비 90% 보조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5월 쌀귀리 종합유통센터 건립과 함께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소비자 초청 등 관광산업과 연계한 '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 전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로 선정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내년에 쌀귀리 종합유통센터를 완공해 품질 좋은 강진산 쌀귀리를 소비자에게 널리 공급하고, 식품 가공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향상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강진 쌀귀리 구매는 초록민음강진 직거래 지원센터(061-433-8844)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정영록기자



강진군이 쌀귀리의 식품 가공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사진은 강진군 쌀귀리 알곡(왼쪽)과 쌀귀리 빵.



강진군이 쌀귀리의 식품 가공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사진은 강진군 쌀귀리 알곡(왼쪽)과 쌀귀리 빵.

최현주 목포시의원,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정책제언 간담회

아동 대상 안전·영양 교육 의무화 조례 등 의견 제안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연산동·원산동·용해동·사진)은 6일 "지난 5일 국회이비스 전남서부지부,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와 함께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정책제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권리 주제인 아동, 청소년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와 중요성을 알고, 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실질

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이용 아동 및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편성, 일회성 정책제언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아동 대상 정기적인 안전·영양 교육 의무화 관련 조례 개정 ▲아동급식지킴이 선발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최현주 의원은 "청소년 시각에서 바라본 다양한 관점을 알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고 목포시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해 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은 목포시, 목포시의회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21년부터 국회이비스 전남서부지부와 함께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정책제언 간담회를 실시해 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완도 전통시장 야(夜)금야금 '호응'

총 4회 진행·3천여명 방문...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완도군은 6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완도 전통시장 야(夜)금야금 주말 야시장'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 10월19-20일, 11월1-2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야시장 기간 동안 3천여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전통시장 내 상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말 야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음은 물론 군민과 관광객에게 주말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특히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고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가족 게임, 노래자랑, 경품 이벤트 등이 진행돼 참여도가 높고 반응이 뜨거웠다. 완도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 연령



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야시장이 완도를 대표하는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해남군이 지난 5일 '안전안심도시' 조성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가운데 부대행사로 청사 앞에서 '해남형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실천 홍보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해남군 제공)

해남 '안전안심도시' 비전 선포

민관 협력 안전 제고...해남형 안전문화운동 전개

해남군이 군민 모두가 편안한 '안전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 해남교육지원청 등 9개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관내 15개 사회단체 등 군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안심도시' 조성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군의 안전수준을 살펴보는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개회, 내빈소개, 기념사 및 축사, 민관 공동협력 협

약과 공동실천 결의, 안전도시 조성 선포와 함께 실천다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부대행사로 진행된 '해남형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실천 홍보가두 캠페인에도 함께 했다. 캠페인에 참석자들은 현수막과 손팻말을 이용해 ▲군민과 함께 지키는 안전한 해남 ▲음주운전 근절 ▲안전벨트 착용하기 ▲불법소각 금지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이륜자동차 탑승시 안전모 착용 ▲노후콘센트 교체 ▲건강한 음주문화 실천 ▲333치술

질 실천 ▲수시로 손씻기 ▲1일 30분 이상 걷기 등을 집중 홍보하고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안전문화 운동은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범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일상생활 속 기본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전 군민이 참여하고 지속가능하게 함으로써 점차 군민이 주도하는 운동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선포식과 범군민 안전문화 캠페인은 해남군이 군민과 함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으로 이뤄지는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지역안전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안전안심도시 해남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나주시, 전세사기 예방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점검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등 단속

나주시는 "최근 이틀간 전남도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월세 거래가 많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합동점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공제증서 및 중개보수료 유효표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수수료부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와 임대차 중개 시 임대인이 임대인의 국제·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사항 등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주요 내용을 중개업자들에게 안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불법 행위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건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



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판대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의심 행위나 허위매물(광고)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나주=정종환기자

영광군, 묘량면 문화공동체 센터 준공

지상 2층·연면적 581.92㎡...행사·교육 장소 활용 예정

영광군은 6일 "지난 4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묘량면 문화공동체 센터 준공식과 제16회 묘량면민의 날 기념행사를 동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장세일 영광군수, 김강현 영광군의회 의장, 김훈경 묘량면장을 비롯한 사회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묘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됐다. 국비 30억원을 포함한 총 45억원이 투입됐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문화공동체 센터 신축, 안전

이 추진됐다. 문화공동체 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581.92㎡ 규모로 묘량마루, 동아리방, 어린이 문화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모임, 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의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세일 군수는 "문화공동체 센터는 주민들의 문화 활동과 공동체 생활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센터가 교육, 건강, 취미생활 등 다양한 소통의 중심지가 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